

## 일렉트릭 기타 특징에 관한 연구 -Fender Stratocaster를 중심으로-

정세응<sup>1</sup>, 조태선<sup>2\*</sup>

<sup>1</sup>한국K-POP고등학교, <sup>2</sup>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 A Study on the Electric Guitar -focusing on Fender Stratocaster-

Sae-Eung Jeong<sup>1</sup>, Tae-seon Cho<sup>2\*</sup>

<sup>1</sup>Korea K-POP High School, <sup>2</sup>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약** 20세기 이후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한 음악은 이전 시대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대중들의 삶과 음악이 서로 함께하는 시대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 흐름을 바탕으로 기존 문화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10대들의 음악이 주류로 진입한 사건인 록큰롤의 탄생과 그 배경에는 기타, 그 중에서도 솔리드 바디 일렉트릭 기타의 출현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일렉트릭 기타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는 록큰롤을 위시한 대중음악의 역사와 함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까지도 많은 추종자와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지지를 받는 막강한 영향력은 대중음악의 역사적 흐름과 일렉트릭 기타의 위상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가교 역할을 했다. 또한 대중음악과 미디어의 비약적인 발전 속에서도 언제나 현재진행형으로 도구를 넘어 시대와 함께 하는 생명력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펜더 스트라토캐스터의 특징과 흔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Music with the development of the media since the 20th century marks a change into an era where the live performance and music of the masses, which were hard to imagine in previous times, are shared. Based on this cultural trend, teenage music, which has been completely alienated from existing culture, is in line with the birth of Rock 'n' Roll, an event that has entered the mainstream, and the emergence of the guitar, especially the solid body electric guitar. The Fender Stratocaster, which is referred to as the epitome of this electric guitar, has joined the history of popular music for rock 'n' roll. To this day, the immense influence, which still encompasses many followers and generations, has served as a bridge that continues to be reproduced, even in the historical trend of popular music and the status of electric guitars. In addition, even in the rapid development of popular music and media, we will always be able to give true meaning and value to the vitality with the times. This paper examines the features and marks of these Fender Stratocasters.

**Keywords** : Electric Guitar, Fender Stratocaster, Rok 'n' roll, Leo Fender, Guitar

### 1. 서론

과거 종교나 정치권력의 상징이자 독점적 도구였던 음

악의 존재는 19세기 이후 비약적으로 진화한 서구 과학  
기술의 혁명과 함께 20세기 초 청각 미디어인 라디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음악의 상업화와 사회적인 영향력을

\*Corresponding Author: Tae-Seon Cho(Chungwoon Univ.)

email: entheos@chungwoon.ac.kr

Received March 18, 2020

Accepted May 8, 2020

Revised April 8, 2020

Published May 31, 2020

극대화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미디어의 출현과 함께한 음악은 대중들의 일상과 떼어 수 없는, 사람들의 삶과 음악이 서로 함께하는 시대로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당시 미국의 아프리카-아메리칸(African-American)을 중심으로 대두되었던 재즈(Jazz)와 더불어 대중음악의 발전하게 된다. 이후 20세기 중반 기존의 문화적 흐름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던 10대들의 음악이 주류로 진입하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의 에너지를 더욱 가속화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록큰롤(Rock 'n' roll)의 출현이란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록큰롤의 탄생 배경에는 기타, 그 중에서도 솔리드 바디 일렉트릭 기타(Solid Body Electric Guitar)의 출현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현재까지 록큰롤 이외에도 다양한 대중음악 스타일의 분화와 함께한 멀티 미디어의 등장과 MIDI 시퀀서(MIDI Sequencer) 등 기술적 발달이 함께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렉트릭 기타의 위상은 대중음악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솔리드 바디 일렉트릭 기타의 시작은 1949년 생산된 펜더사의 에스콰이어(Esquier)지만 뒤이어 1954년에 출시된 스트라토캐스터(Stratocaster)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펜더와 일렉트릭 기타계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우는 기타 메이커인 깁슨(Gibson)사의 레스 폴(Les Paul)과 더불어 일렉트릭 기타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는 록큰롤을 위시한 대중음악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까지도 많은 추종자와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지지를 받는 막강한 영향력은 대중음악의 역사적 흐름과 일렉트릭 기타의 위상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가교 역할을 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펜더 스트라토캐스터의 탄생배경과 성장과정을 Pre-CBS, CBS, Post-CBS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 기타의 특징과 당시 시대적 배경과 아울러 나타나는 펜더 스트라토캐스터의 흔적들을 대중음악의 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5].



Fig. 1. 1954 Fender Stratocaster [9]

## 2. 본론

### 2.1 펜더의 탄생과 배경

#### 2.1.1 Pre-CBS

펜더사의 창립자인 레오 펜더(Clarence Leo Fender 1909~1991)는 어릴 적부터 전기제품을 만지는 것을 좋아하였다고 한다. 8살 즈음에는 피아노와 색소폰을 배우기도 하며 악기에 관심을 두며 고등학교 진학 이후 라디오 제작에 열을 올렸는데 이때부터 그의 전기공학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 1928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플라톤 주니어 단과대학에 입학하여 상경계열을 전공해 경리 실무를 익혔으나 학과공부 보다는 자신의 집에서 라디오 수리를 하는 것에 더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1934년에 레오 펜더는 결혼을 함과 동시에 회계사로 취업하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플라톤으로 돌아와 '펜더 라디오 서비스'(Fender Radio Service)라는 이름의 라디오 전문 수리점을 개업한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인근에선 유명한 라디오 수리점으로 알려지게 되어 1940년경 사업규모를 확장하게 된다. 소리에 관련된 모든 전기제품을 취급하기 시작하게 되며 레오 펜더는 당시 음악인들에게도 알려지게 되었고, 몇몇 연주자들에 의해 자신이 사용하던 어쿠스틱 기타의 개량을 목적으로 가져오게 된다. 당시 레오 펜더에게 의뢰 하던 연주자들의 요구는 어쿠스틱 기타(Acoustic Guitar)를 앰프로 출력이 가능한 일렉트릭 기타 형태로 개조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폐차된 T형 포드 자동차에서 떼어낸 마그네틱을 사용해 픽업(Pickup)을 만들어내어 연주자들의 요구에 답하게 된다. 이후 1943년경 생애 최초의 일렉트릭 기타를 독자적으로 만들게 되는데 이 기타는 라디오 샵 기타(Radio Shop Guitar)라 불렸다.



Fig. 2. Radio Shop Guitar [9]

1945년이 되자 레오 펜더는 기타와 함께 앰프로 함께 생산하기 시작하며 'K&F Manufacturing'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1949년 최초의 솔리드 바디 1픽업 일렉트릭

기타인 '에스콰이어'를 완성하였다. 1950년 초에는 이를 개량하여 2픽업 어셈블의 브로드캐스터(Broadcaster)를 제작하였으며 이후 몇 가지 개량을 거쳐 텔레캐스터(Telecaster)란 모델로 발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후 레오 펜더는 텔레캐스터에서 미세 튜닝의 조정을 비롯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으나 개량하기 보다는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이렇게 탄생한 일렉트릭 기타가 바로 레오 펜더 최고의 역작인 펜더 스트라토캐스터이다[6].

### 2.1.2 CBS

1965년에 이르러 건강이 악화로 더 이상의 경영이 힘겨워진 창립자 레오 펜더는 펜더사를 미국 캘리포니아 레코드 산하 거대 방송사인 CBS로부터 1300만 달러에 매각하게 된다. 당시 CBS가 집계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기타 연주자는 약 900만 명이었고, 1965년도에 1년 동안 판매된 일렉트릭 기타의 소매가를 합산하면 1억 8500만 달러로 1958년도에 기록했던 일렉트릭 기타의 전체 소매가 합인 2400만 달러에 비해 약 여덟 배의 성장을 기록한 수치였다. 이 통계 자료를 근거로 CBS는 악기 시장의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며 펜더사의 인수로 그 행보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CBS의 주도하에 펼쳐진 경영전략은 악기의 생산을 늘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레오 펜더가 고수하던 기존의 생산 라인업을 대형화, 세분화하여 일렉트릭 기타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CBS는 여러 부분에서 기존의 레오 펜더와 다른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스트라토캐스터의 경우 헤드와 로고 디자인, 바디와 넥을 고정하는 기존의 4개 볼트 온(Bolt-on) 접합방식에서 삼각 플레이트로 볼리 우는 3개의 볼트 접합방식의 전환, 총알 트러스로드(Bullet Trusrod)등 몇 가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거친 CBS시기의 스트라토캐스터들은 여러 해에 걸쳐 기타연주자들과 수집가들 사이에서 불만이 싹트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불만은 소위 pre-CBS시절의 악기들이 더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 의해 더욱 증폭되었다. 레오 펜더 시절에 비해 품질보다는 이윤 추구가 먼저였기에 그 결과물은 1965년 이전의 기타와 비교하여 불량률의 상승으로 많은 비판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CBS의 경영전략과 제품의 질적 변화는 점점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되어 CBS시기의 펜더사는 점차 경영악화의 길로 빠지게 되었다[4][7].

### 2.1.3 Post-CBS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CBS가 경영에서 완전하게 손을 떼며 1250만 달러의 금액으로 1985년 빌 슐츠(William Charles Schultz 1926~2006)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펜더사를 매각 하게 된다. 펜더사를 새롭게 인수한 경영진들은 공식 명칭을 FMIC(Fender Musical Instruments Corporation)로 바꾸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준비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빈티지 리이슈(Vintage Reissue)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Pre-CBS시기인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중반 사이에 출시되었던 텔레캐스터와 스트라토캐스터를 복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물로 1957년과 1962년산 펜더 스트라토캐스터, 1952년산 펜더 텔레캐스터의 재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이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펜더사는 과거의 명성에 다시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된다. FMIC의 경영진들은 과거 레오 펜더 시절과 CBS시절의 질적점을 찾아 수작업으로 고가의 모델을 소량 생산한다. MBS(Master Build Serie)와 커스텀 샵(Custom shop)시리즈 그리고 멕시코에서 OEM방식으로 대량 생산하는 모델들을 동시에 출시하며 다양한 소비층에게 스트라토캐스터를 비롯한 펜더사의 다양한 일렉트릭 기타를 공급하게 된다. 또 이러한 특성에 발맞추어 유명 음악가나 기타연주자들이 직접 기타의 디자인에 참여하거나 그들의 요구가 반영된 맞춤 기타모델인 시그네처(Signature) 시리즈를 발매하였다. 또한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를 이용해 기념비적인 연주를 남긴 명연주자를 선정, 그들이 오랜시간 사용했던 스트라토캐스터를 비롯한 펜더사 기타의 복각판인 트리뷰트 시리즈(Tribute Series)를 한정 공급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3].



Fig. 3. Shin Joong Hyun Tribute Fender Stratocaster [8]

## 2.2 펜더 스트라토캐스터의 특징

### 2.2.1 정체성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는 출시부터 그 당시 다른 일렉트릭 기타와 차별화되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 솔리드바디

일렉트릭 기타로는 최초로 세 개의 픽업이 장착되었다. 브릿지를 중심으로 위치에 따라 리어(Rear), 미들(Middle), 프론트(Front)로 구분된 세 개의 픽업들은 각각 여섯 개의 독립적인 폴피스(Pole piece)를 가지고 높이 조절을 통해 각 스트링의 볼륨 밸런스를 따로 맞출 수 있는 새로운 형태였다[4].



Fig. 4. Pickup Pole Piece [9]

브릿지 픽업은 텔레캐스터처럼 기울어져 있었고 이를 조절하기 위한 3단 픽업 셀렉터(Pickup Selector)는 각각의 픽업을 개별적으로 선택 가능하게 하였다. 바디의 재질은 당시까지는 음향목으로 사용되지 않던 몰페루나무(Swamp Ash)와 오리나무(Alder), 넥 재질은 단풍나무(Maple)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선택은 깁슨(Gibson)과 같은 기존 기타 메이커에서 주를 이루던 마호가니(Mahogany)나 흑단(Ebony)과 같은 음향목에 비해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어 단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러한 재료들 중 음향적 특성이 비교적 고르고 가공의 용이함을 염두에 둔 선택이었다. 또한 기존의 어쿠스틱 기타(Acoustic Guitar)를 비롯한 깁슨사의 일렉트릭 기타 모델인 레스 폴에서 채택한 바디와 넥의 접합방식이던 셋 넥(Set-Neck)방식과 달리 넥의 교체와 조립, 개조가 용이하도록 볼트로 고정하는 볼트 온 방식을 채택한 것도 실용성에 바탕을 둔 스트라토캐스터의 정체성 중 하나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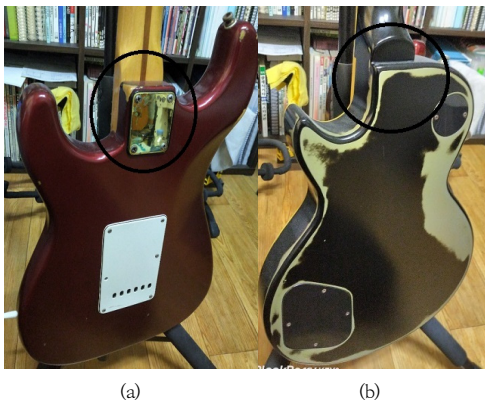


Fig. 5. Neck Joint Comparison  
(a) Fender Bolt-On Joint (b) Gibson Set-Neck Joint

여기에 새롭게 디자인되어 장착된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Synchronized Tremolo) 브릿지는 이후에 타 일렉트릭 기타 브랜드에서도 적용되어 현재까지 트레몰로 브릿지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지게 된다. 이러한 펜더의 트레몰로 브릿지는 기존 텔레캐스터의 고정형 브릿지의 단점을 보완한 결과물로 스트라토캐스터가 출시되던 1954년도에 특허를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비브라토 브릿지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방식의 제품으로 각 현의 개별 조정이 가능한 브릿지와 테일피스(Tailpiece), 핸들(Handle)을 비롯한 비브라토 시스템을 한 유니트(Unit)안에 모두 들어가 있었다. [4] 이 비브라토 브릿지는 완벽하게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레오 펜더의 생산 원리였던 ‘원래 있던 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다.(Develop the original one a little bit.)’는 전략에 부합하며 이전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주자들에게 정확한 튜닝과 효율적인 비브라토 연주를 제공하려는 레오 펜더 회심의 역작이었다. 이러한 새 비브라토 시스템을 가진 브릿지의 개발로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는 브릿지의 새들(Saddle)로 각 현의 미세튜닝은 물론 높이와 길이를 모두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기존 텔레캐스터의 고질적 문제였던 튜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정확한 음정의 연주가 가능해졌다.[3]



Fig. 6. Synchronized Tremolo Bridge [9]

## 2.2.2 디자인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는 악기뿐만 아니라 디자인된 하나의 상품으로서 가치도 상당했다. 스트라토캐스터는 50년대 코리지느러미 디자인의 전형이었다. 이러한 바디 디자인은 50년대의 기타 시장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것이었다.

연주자를 위한 바디의 컨투어(Body Contour)처리와 선버스트(Sunburst)를 비롯한 다양한 옵션의 피니쉬(Finish)도 크게 각광받았다.



Fig. 7. Body Contour

높은음자리 모양을 기본으로 디자인한 텔레캐스터의 헤드틀을 기본으로 새롭게 디자인된 스트라토캐스터의 헤드 디자인을 비롯, 잭을 연결하는 포트조차 바디의 전면부를 파내어 잭 마운트 플레이트와 함께 마감하는 방식은 현재까지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를 대표하는 디자인으로 남아있다. 넥 접합은 텔레캐스터와 같이 기존의 4 볼트 온 방식을 채택했으나 줄을 튜닝하는 헤드머신(Head Machine)도 새로왔다.

모양만 비교해 본다면 먼저 1948년 그렛치(Gretsch)사에서 출시되었던 멀 트래비스 (Merle Travis 1917~1983)의 솔리드 스트루브 바디(Neck-Thru Body) 기타의 헤드머신과 비슷한 모양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레오 펜더가 멀 트래비스 헤드머신 디자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트레몰로 브릿지와 볼트온 넥 바디 칸투어 디자인은 물론 오히려 19세기 중반부터 전통적 디자인으로 유명했던 마틴(Martin)과 같은 어쿠스틱 기타 브랜드의 헤드머신에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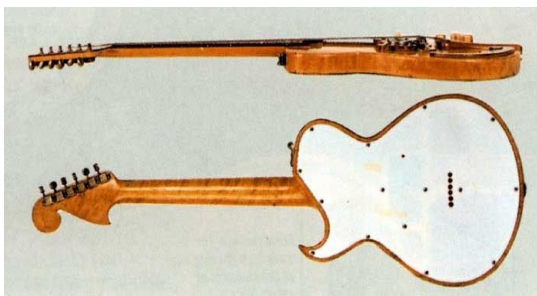


Fig. 8. Merle Travis' Gretsch Guitar [10]

레오 펜더 스스로도 스트라토캐스터의 헤드머신 디자인은 당시 미국을 유랑 중이던 크로아티아 악단의 '탐부리카 베르다(Tamburica Berda)'라는 민속 악기를 보고 영감을 얻었다고 하니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레오 펜더만의 독특한 감각이 가미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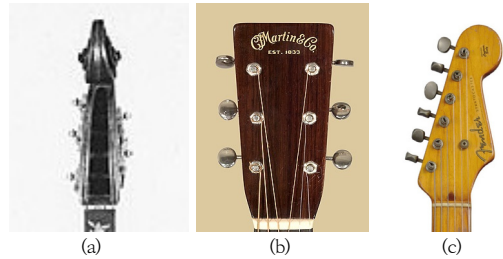


Fig. 9. Fender Design

(a) Tamburica Berda (b) Martin (c) Fender Head Machine [9] [11]

### 2.2.3 영향력

펜더의 전설적 모델 스트라토캐스터도 1950년대 중반 처음 출시된 직후부터 상업적인 성과를 거두기 시작한 것은 아니다. 1954년도에 첫 출시되고 55년까지 1년 동안의 판매량 통계를 살펴보면 스트라토캐스터는 720대로 1,027대가 팔린 텔레캐스터의 판매량에 비해 저조한 판매를 거두게 된다. 당시의 도매를 담당하는 기타 딜러들부터 스트라토캐스터를 대량 매입하는 것은 꺼려했던 것이 작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획기적으로 변화된 브릿지가 이유였다. 하지만 1950년대 중후반 록큰롤의 시대가 오면서 버디 홀리(Buddy Holly 1936~1959), 칼 퍼킨스(Carl Perkins 1932~1998), 버디 가이(Buddy Guy 1936~)와 같은 당대 유수의 기타리스트들이 펜더 스트라토캐스터와 함께 트레몰로 브릿지를 사용한 연주를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많은 음악가와 연주자들은 새로운 사운드와 연주 기법에 열광했고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는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멀리 영국에서도 밴드 쉐도우스(Shadows)의 기타연주자 행크 마빈(Hank Marvin 1941~)이 펜더 스트라토캐스터에 열광했다. 행크 마빈은 클리프 리처드(Cliff Richard 1940~)의 보컬을 주축으로 하는 밴드 쉐도우스의 기타리스트로 1951년 영국에서 발표된 미국제품의 수입금지령이 해제된 1959년부터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를 사용하였고, 행크 마빈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한 붉은 색상(Candy Apple Red)의 스트라토캐스터는 영국 최초의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로도 알려져 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음악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악기 시장도 호황의 중심에 들어서며 유행하기 시작한 서프 사운드(Surf Sound)와 함께 스트라토캐스터 역시 악진을 거듭하게 된다. 이러한 서프 사운드의 대표 연주자로 디크 데일(Dick Dale 1937~)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윈

손잡이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를 줄 순서를 거꾸로 매어 연주하는 모습이 트레이드마크인 기타연주자이다. 덕 데일은 리버브(Reverb)를 비롯한 공간계열의 이펙터를 적극적으로 활용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를 사용하여 서프(Surf) 기타 사운드를 확립한 장본인이다.

1965년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Newport Folk Festival)에서 기존의 어쿠스틱 사운드에서 벗어나 일렉트릭 사운드로 전환을 시도한 포크 락(Folk Rock)을 선보인 밥 딜런(Bob Dylan 1941~)역시 마틴의 어쿠스틱 기타 대신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를 사용하며 스트라토캐스터의 영향력에 일조하게 된다. 이렇게 1960중반 이후 CBS시기의 펜더사는 수요에 대한 걱정 없이 공격적인 생산 확대에 주력하게 되지만 비틀즈(Beatles)와 롤링 스톤스(Rolling Stones)의 필두로 한 영국밴드의 미국시장 진출(British Invasion)이 시작되자 펜더 스트라토캐스터의 인기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주류에서 멀어지게 된다. 당시 비틀즈와 롤링 스톤스가 사용하던 기타는 펜더 스트라토캐스터와 같은 솔리드바디 일렉트릭 기타가 아닌 어쿠스틱 기타와 같이 바디 안이 비어있는 할로우바디(Hollowbody) 일렉트릭 기타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당시 펜더 스트라토캐스터의 수요는 급감하게 되지만 뒤이어 등장한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연주자인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 1942~1970)와 1970년대 이후 할로우 바디 기타에서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를 사용하기 시작한 에릭 클랩튼(Eric Clapton 1945~)의 등장으로 인해 펜더 스트라토캐스터의 인기는 기적으로 기사화생하며 그 위상을 현재까지 공고하게 유지하는 계기가 된다[3].

### 3. 결론

펜더 스트라토캐스터 출시 40주년인 1994년에 공식 집계된 펜더 스트라토캐스터의 누적 판매 대수는 150만 대 이상으로 2010년 기준 이미 200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훌쩍 뛰어 넘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출시된 이후 매일 최소 100대 이상 꾸준히 판매해야만 달성 가능한 수치이다. 하지만 펜더 스트라토캐스터가 지닌 가치와 의미는 단순히 이러한 판매대수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바로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로 연주되었던 많은 대중음악 작품과 이로 인한 역사성은 끊임없이 진화했던 과정 속에서 재생산 된 그 원동력에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78년 데뷔하며 지미 헨드릭스의 등장 이후 다시금 일렉트릭 기타 연주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밴 헤일런(Van Halen 1955~)은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를 기반으로 개조한 모델인 프랑켄슈타인(Frankensteen)을 사용하며, 이어지는 1980년대의 헤비메탈(Heavy Metal)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것은 곧 슈퍼 스트랫(Super Strat)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잭슨(Jackson), 샤벨(Charvel), 크래머(Kramer), ESP등 유수의 일렉트릭 기타 메이커의 탄생으로 이어져 스트라토캐스터의 또 다른 진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잉베이 맘스틴(Yngwie Malmsteen 1963~), 로버트 크레이(Robert Cray 1953~), 스티비 레이본(Stevie Ray Vaughan 1954~1990), 최근의 존 메이어(John Mayer 1977~)와 같은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를 사용하는 여러 기타 연주자들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장르를 넘나들며 굳건하게 대중음악 한복판을 함께하는 재생산의 원동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펜더 스트라토캐스터에 대한 역사적 가치는 레오 펜더의 1992년 락큰롤 명예의 전당(Rock'n'roll Hall of Fame)의 비 연주자 부분(Non-Performer)현역은 이러한 펜더 스트라토캐스터의 역사적인 가치와 원동력을 증명하 또 다른 사례일 것이다. 이렇듯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는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일렉트릭 기타, 다른 브랜드에 의해 가장 많이 카피된 일렉트릭 기타, 가장 많은 연주자들에 의해 연주된 일렉트릭 기타로 남았다. 더 나아가 대중음악 그리고 미디어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도 언제나 현재진행형으로 도구를 넘어 시대와 함께 하는 생명력에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들 수 있을 것이다[7].

###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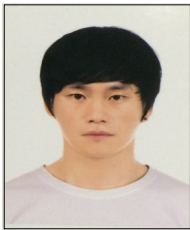
- [1] J.S. Gong. & T.S. Cho, "A Study on the Birth and Development Process of soul Music" . The Society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5, No.12, pp.455-460, Dec 2017  
DOI : <https://doi.org/10.14400/JDC.2017.15.12.455>
- [2] C. H. Ham & T. S. Cho., "A study on the 1970's korea Psychedelic Rock (focusing on Shin, Joong hyun)"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9, pp.694-699, Sep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9.694>
- [3] Tony Bacon, The Fender electric guitar book Backbeat Book, 2007 third edition. pp.192, Dec.2014.
- [4] Joo Seung Hoon, The Bluesman : Stevie Ray Vaughan. Jay Blues Workshop. pp.56, 2006.

- [5] Heon-Kang, Moment of Abalone and reversal. DolBaegee. pp.358, 2015.
- [6] Yun-Eon Kim, Yesterday and Today at Fender Stratocaster. Music Land. March, pp.76-78, 1991.
- [7] K. H. Noh. *The Use of Guitars in Traditional Heavy Metal Music*.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General Studies at Sangmyung University : New Media Music Department. pp.13-19, 2018.
- [8] <https://shop.fender.com/en/electric-guitars/>
- [9] <https://www.strat-talk.com/threads/65-value.517657/>
- [10] J.S. Kong, & T.S. Cho. "Discussion of the Success of Motown records Company", *The Society Digital Policy & Management* Vol.15, No.6, pp.439-445, Jun 2017. DOI : <https://doi.org/10.14400/JDC.2017.15.6.439>
- [11]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umuschool&logNo=50132472711&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

정 세 응(Sae-Eung, Jeong)

[정회원]



- 연주인
- 2018년 2월 : 청운대학교 대학원 실용음악과 (음악학석사)
- 2018년 5월 ~ 현재 : 한국k-pop 고등학교 겸임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출강

<관심분야>

대중음악, 실용음악, 기타(Guitar)

---

조 태 선(Tae-Seon, Cho)

[중신회원]



- 2010년 2월 : 실용음악학회 회장
- 2016년 6월 : 대한가수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 2019년 8월 ~ 현재 : 한국실용음악교육협회의 회장
- 2019년 8월 ~ 현재 : 한국대중예술융합협회 회장
- 2001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보컬